외국인 프로그램…‘동남아 출신’은 출연금지?

**‘헬로! 이방인’ ‘비정상회담’ 외국인 프로
미국·일본 출연자 단골 …동남아는 전무
이주노동자 편견 깨고 다양한 접근 필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실제 다양성에 관한 진중한 고민은 아쉽기만 하다. 사진은 MBC ‘헬로! 이방인’의 한 장면. 사진제공 | MBC

재한 외국인 인구는 157만여명. 그만큼 이들은 한국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외국인의 등장은 TV프로그램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외국인이 전면에 나선 KBS 2TV ‘미녀들의 수다’(2006)를 시작으로 최근 인기리에 방송 중인 MBC ‘헬로! 이방인’과 종합편성채널 jtbc ‘비정상회담’ 등 외국인이 주인공인 프로그램도 늘고 있다. 이방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이 색다른 재미를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연자는 대부분 미국·일본·중국 출신 등이 빠지지 않지만 동남아시아 사람은 드물다.

●“똑같은 것도 외국인이 보면 다르다”

외국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인기 포인트는 그들이 밝히는 자국 이야기가 아닌 한국과 한국문화에 관한 체험담이다. 시청자는 한국을 두고 국적에 따라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의 모습에 재미를 느낀다.

‘헬로! 이방인’은 외국인 10명이 한 집에서 1박2일 동안 머무르며 한국 생활 중 겪은 에피소드를 나눈다. ‘비정상회담’ 역시 지금 한국 젊은이들이 한국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야기한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우리 스스로 지나쳐버린 우리 문화를 이방인의 시선을 통해 새삼 알게 되는 재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미국·일본은 단골…동남아는 없다”

‘헬로! 이방인’과 ‘비정상회담’ 출연자 중에는 공통적으로 미국·캐나다·일본·중국 출신이 있다. 출신 나라가 겹쳐 시청자에게는 식상함을 안겨주기도 해 ‘헬로! 이방인’에는 콩고민주공화국·리비아, ‘비정상회담’에는 가나·벨기에 등 그동안 접할 기회가 적었던 나라 출신 외국인을 투입시켰다.

제작진은 이처럼 외국인 출연자 섭외를 위해 다양성을 우선에 둔다. ‘헬로! 이방인’의 연출자 유호철 PD는 “특정 국가 출신이란 점을 조건 삼지는 않는다. 제작진으로서 시청자에게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알려주어야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출신국이 겹치지 않게 출연자를 캐스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TV 속에서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는 많지 않다. KBS 1TV ‘러브 인 아시아’와 EBS ‘다문화 고부 열전’ 등 교양 프로그램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이주민 여성들의 힘겨운 일상을 다루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헬로! 이방인’의 인기에서 볼 수 있듯, 교양프로그램보다 시청자의 시선을 끌어들이는 데 상대적 이점을 지닌 예능프로그램에서 동남아 출신 외국인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7월 종영한 케이블채널 tvN ‘막돼먹은 영애씨’에 방글라데시 출신의 스잘김이 외국인 노동자 역으로 출연한 게 최근의 사례일 뿐이다.

●“더 다양한 문화 소개 필요성 있다”

이 같은 상황에는 일부 대중이 동남아 출신 외국인에 대해 가지는 선입견과 편견이 영향을 끼쳤음을 무시할 수 없다. 한 방송 관계자는 “영어권 출신 외국인 출연자가 늘어난 것은 선진국에 대한 시청자의 동경에서 비롯된 궁금증이 작용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국인과 그들이 한국 혹은 한국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관심은 동남아 출신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더욱 커진 것도 사실이다. 그 이면에서 아시아권 이주민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기도 한다.

따라서 방송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진정한 다문화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화적 차이에서 생기는 이질감을 인정하고 이를 예능프로그램이 새롭게 구성해 또 다른 소통의 창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덕현 평론가는 “방송이 나서서 다양한 국적의 출연자들을 출연시킴으로써 대중이 외국인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연예뉴스 스테이션

이병헌 “아내 이민정에 피해…안타깝다”

‘음담패설 동영상’ 협박 사건에 휘말린 이병헌(사진)이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다. 실망하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병헌은 20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로 출국하며 “제가 받아야 할 질책이 아내 이민정과 가족들에까지 피해가 확산돼 안타깝다. 아내가 받은 상처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헌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확산되고 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델 이모 씨와 그룹 글램의 다희로부터 협박을 당한 뒤 현재 이들의 11월11일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그는 법정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병헌은 캘리포니아 홍보대사 일정과 차기작 미팅 등을 위해 이날 출국했다.

“레이디스코드 교통사고 차량결함 문제 없다”

그룹 레이디스코드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승합차 차체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레이디스코드 멤버들이 타고 있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한 정밀감정을 벌여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일 ‘사고 이후 갓길 방호벽을 들이받는 충격에 의해 뒷바퀴가 빠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운전사가 경찰 조사에서 “운전 도중 갑자기 바퀴가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해 뒷바퀴가 빠지면서 빗길에 미끄러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경찰은 고속도로의 구간별 CCTV를 입수해 차량 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자가 규정 속도인 시속 100km를 넘은 130km 이상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기자 박건형, 11세 연하 여친과 비공개 웨딩

연기자 박건형(37)이 11세 연하 여자친구와 20일 결혼했다. 박건형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2012년 처음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고 2년여 교제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 신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알려졌다. 박건형은 현재 MBC 예능프로그램 ‘일밤-진짜 사나이’에서 일명 ‘끝판왕’으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다.

영화 ‘명량’ 중국전역 3000여개 극장서 개봉

영화 ‘명량’이 중국에서도 개봉한다. CJ E&M은 20일 “연내 중국 전역 3000여개 극장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중국 최대 국영배급사 차이나필름그룹이 배급을 맡는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명량해전’이라는 이름으로 극장에 내걸리고, 상영시간도 국내보다 20분 가량 줄어든다. 편집은 김한민 감독이 맡는다. ‘명량’은 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에서 개봉했고, 대만·인도·호주·뉴질랜드 등 총 13개국에 판매됐다.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

‘할리우드 스타일로’…이정재, 영화제작자 새도전

멜로영화 준비…경우 따라 주연도

톱스타 이정재(사진)가 할리우드식으로 영역 확장을 꾀하며 영화 제작자로서 역할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최근작 ‘도둑들’ ‘신세계’ ‘관상’이 연속 성공하며 흥행 배우로 입지를 다진 그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부지런히 나서고 있는 셈이다.

이정재는 시나리오 작가들과 협업하며 멜로 장르의 영화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연까지 맡는다는 계획이다. 투자배급사 쇼박스와 이를 논의 중인 이정재는 오랫동안 제작에 의욕을 드러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0일 “아직 가시화 단계는 아니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그의 행보는 비슷하게 영화에서 활동한 다른 배우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 더욱 눈에 띈다. 앞서 영화 경력을 쌓은 배우 박중훈, 유지태, 하정우 등이 감독으로 데뷔해 활동하고 있지만 이정재처럼 제작에 먼저 나서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그의 행보는 톰 크루즈 등 할리우드 톱스타들이 주로 해온 방식과 흡사하다는 시선도 나온다. 영화계 한 관계자는 “전문적인 재능을 가진 스태프와 합작해 영화를 완성하겠다는 시도”라며 “무조건 연출에 욕심을 내기보다 제작으로 역량을 펼치는 색다른 접근”이라고 밝혔다.

이정재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현재 일제강점기를 다룬 최동훈 감독의 ‘암살’을 촬영 중인 그는 허진호 감독의 새 영화 ‘덕혜옹주’ 출연을 제의받고 고심 중이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칸타빌레’ 드라마 첫 예술의 전당 내부서 촬영

KBS 2TV 월화드라마 ‘내일도 칸타빌레(사진)’가 국내 드라마 최초로 예술의 전당 내부에서 촬영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눈길을 끈다.

‘내일도 칸타빌레’는 최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과 리사이트홀을 배경으로 촬영을 마치고 이를 13일과 14일 방송했다. 예술의 전당이 국내 드라마 촬영을 위해 대관해주기는 처음이다.

‘내일도 칸타빌레’ 제작진은 원작인 일본 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가 실제 음악학교에서 촬영함으로써 분위기를 잘 살린 효과에 착안해 드라마의 사실성을 강조하고 클래식의 웅장함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예술의 전당 섭외에 심혈을 기울였다. 예술의 전당에서는 일반적인 가수들의 콘서트보다는 클래식 등 다소 격식이 갖춰진 음악을 주로 공연하다보니 대관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내일도 칸타빌레’가 클래식을 주요 소재로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예술의 전당 측은 촬영을 허가하며 이미 계획된 공연의 리허설 등과 겹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연주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촬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제작진은 예술의 전당 관계자 참관 아래 조심스럽게 촬영에 임하고 있다. 제작사 그룹에이트 관계자는 “원작의 인기와 주원 등 연기자들의 이름에 대한 신뢰로 어렵게 내부 촬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뉴디지털 러브콜팬티
1. 사람이 죽기 전에는 성기가 죽지 않고 잠자고 있기 때문에 성기 신경을 자극하면 잠자던 성기가 일어나 발기되는 원리. 각종 병 있어도 관계없고, 완전발기 불능자도 통증 없게 발기되고, 자기 원하는 만큼 발기가 지속되게 하는 특허품 팬티.
2. 발기 안 되고 빨리 시들면 환불.
3. 발기 안 되게 성기 목을 아프게 묶는 링 같은 기구가 아니다.
4. 자연발기보다 혈액이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 발기 때보다 더 길어지고 할수록 더 길어진다.
＊러브콜 팬티 + 15센치 길게
010-9607-9970 · 010-2762-2540
농협 170202-56-055221 (김영순)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31길 8-1, 통신강동구 2013-0738호

나만의 女人
공기인형
신장 160cm
신용카드 결제환영
특별할인가 : 15만원~19만원
MADE IN KOREA
외로운 남성분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
가격부담을 속시원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
내구성이 강화된 두겹으로 튼튼하고
부드러운 탄력성이 우수한 제품
사용하시기 편한 자세로 완성된 제품
인생을 즐겁게 누리세요~~!
광고는 줄이고 가격은 내렸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 주세요.(전화번호 기록 요망)
고려물산 공장직영 판매!!
구입 문의 010-5608-1237 010-2655-1326
예금주 : 고려물산 농협 302-0895-9522-41

정품 추억의 명곡가요 노래방 라디오!
산으로, 들로, 운동할 때, 야외활동시 추억의 음악과 함께!
▶전곡 오리지널 가수가 불러주는 추억의 음원
▶고품질 MP3 음향, LED 대화면 가사제공
▶8기가 503곡, 4기가 104곡 선택 가능
▶고감도 FM라디오, 고성능 녹음기능 내장(BOOM)
기존 시중에서 판매하던 7080라디오는 불법음원으로 오리지널 가수의 원곡이 아니며 한국음반사업협회는 불법복제음원을 넣은 불법 SD카드 척결 및 유통방지를 위하여 정부의 단속을 요구, 유통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으며 AS 또한 불가능한 불법제품들로 생산이 중단되었으며금번 새로이 출시된 ‘추억의 명곡가요 노래방 라디오’ 제품은 적법한 음원을 사용, 원음의 고품격 음질과 오리지널 가수의 멋들어진 최상의 노래와 반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전곡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인증 정품 제품
고급형 붐(BOOM-R8)
● LED 대화면 가사제공
● 자동선국 FM라디오기능
● 고성능 녹음기 기능 내장
● 중간볼륨 사용시 최대 20시간 사용기능
● 무게: 92g (배터리 포함)
● 사이즈: 108x55x21.5mm
● 색상: 블랙
www.sunsea.kr
가짜 불법 음원 사용은 우리나라 대중음악 발전에 큰 타격을 줍니다!
● 정품SD음원카드 503곡/104곡 각각 별도구매 가능
구성: ● 고급형 붐(R-8)+ 503곡
● 보급형 팝(R-8)+ 104곡
LOGOS 로고스 오디오 성경 녹음 라디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하세요”
● 정독 성경 신구약 66권 1,189장
● 빠른 낭독 신구약 66권 1,189장
● 찬송가 645곡/ 복음성가 100곡
● 8기가 메모리/ 녹음기능/ 사이즈: 101x57x21mm
● 색상: 블랙 /노래방 음원카드 사용가능
● 최대 20시간 사용가능
성경전용 BOOM-R7
KCC 방송통신위원회 인증을 필한 제품입니다. 등록번호: MSIP-REI-IDO-BOOM-R7 등록번호: MSIP-REI-IDO-BOOM-R8
구입문의: 1644-2464 입금계좌: 농협 351-0651-2246-73 제이에스넷

‘꾸노온풍기’ 반값
서울경제신문 베스트히트상품
초절전형 6만9000원 오늘 50대 한정판매!
풍년압력솥으로 유명한 (주)PN풍년에서 초절전형 ‘꾸노온풍기’. 전기절약 회로를 기본 장착한 절전형이지만 강력한 온풍을 뿜어내는 ‘꾸노 온풍기’를 50대 한정 특가판매에 들어간다.
기존 온풍기와는 달리 예열없이 켜는 순간 온풍이 작동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안전을 위해 3중 안전장치를 탑재하였고 2단계 온도조절 및 풍속조절이 가능한 최신 기종이다.
특히 저소음이면서 강한 온풍효과와 유럽형의 심플한 디자인을 채택하여 장소에 관계없이 부담없는 큐빅형 온풍기 이며사이즈도 18X18X18.8cm로 적당하여 좋은 평가가 앞서고 있다.
과열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과열자동체크시스템과 작동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절전 시스템, 제품이 기울어지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3중 안전시스템으로 아이들의 난방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좋다.
전기히터는 열이 일방향으로 전달되지만 ‘꾸노 온풍기’는 빠른 시간 내에 공기 전체를 따뜻하게 할 수 있으며 기름난로보다 월등히 저렴하게 난방할 수 있고 공기오염이 없어 환기걱정이 없는 것이 큰 장점이다. 가정, 사무실, 오피스텔, 가게에서 공간차지가 적은 ‘꾸노온풍기’가 적당하다.
소비전력(750~1,500W)이 적어 경제적인 열풍기로 인기가 높아 반값에 50명 선착순 판매하며 전화로 주문하면 무료배송해준다. www.sunsea.kr
항공기에 사용하는 P.T.C히터 장착으로 과열방지
전기요금 산출근거(일반용 갑) 누진세 미적용
1단: 79.3원 x 0.75kw x 8시간= 약 476원
2단: 79.3원 x 1.5 kw x 8시간= 약 952원
구입문의: 1661-1224
입금계좌: 농협 351-0651-2246-73 제이에스넷
통신판매 2013 서울관악 0804호 제이에스넷 E-mail: kakaose4@naver.com